

국제유가, 2006년 60달러 상회할까?

옥스퍼드 · CGEC는 추가강세 전망 ... 캠브리지는 50달러 중반 예측

국제유가가 2006년에도 계속 상승해 2005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옥스퍼드경제연구소(OEF)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청(EIA) 등 7개 주요 예측기관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취합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2006년 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옥스퍼드경제연구소(OEF)는 북해산 Brent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가 2005년 배럴당 56.3달러에서 2006년에는 64.4달러로 15%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WTI(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를 기준으로 한 EIA 전망 역시 2005년 배럴당 57.6달러에서 2006년에는 64.5달러로 12%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에너지연구소(CGEC)는 Brent유를 기준으로 한 유가가 2005년 배럴당 54.8달러에서 2006년에는 평균 58.5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는 선물유가를 기초로 2005년 배럴당 55.0달러에서 2006년에는 61.0달러로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바클레이즈캐피털은 Brent유를 기준으로 55.8달러에서 58.5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는 Brent유를 기준으로 2005년과 2006년 배럴당 58.0달러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도 Brent유 기준으로 2005년 배럴당 55.4달러에서 2006년에는 53.5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CERA는 2006년 미국과 중국의 석유 수요가 대폭 둔화되면 배럴당 41.3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으나 주요 산유국의 공급차질로 인한 비관적인 상황이 도래하면 76달러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화학저널 2005/11/23>